



지난 10일 도쿄 시나가와프린스호텔에서 일본에서의 첫 팬미팅을 가진 달래 멤버들

■내달 데뷔 앞둔 탈북자 출신 여성그룹 '달래 음악단'

“北에서 다진 재능 보여줄 겁니다”



탈북자 출신 여성들로 구성된 그룹 '달래 음악단' 멤버들. 왼쪽부터 한옥정·임유경·강유은·이윤경·허수향씨. <조선일보 제공>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 거리. 나~는야 꿈을 꾸며 꽃 파는 아가씨~” ‘라~이 라이야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필래요~’ 서울 밤배동의 연습실에서는 고음의 간드러지는 노래 소리와 흥겨운 아코디언 연주가 끊이지 않는다. 데뷔를 앞둔 탈북자 출신 여성그룹 달래음악단(가칭)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연습하는 소리다. 오후 6시가 연습을 종료하는 시간이지만 “더 하자”고 자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머리엔 야구 모자, 다리에 딱 붙는 팬츠와 덧입은 짧은 치마. 한국의 여는 20대 신세대와 차림새가 다르지 않다. 단지 ‘사’과 ‘어’의 도드라지는 발음과 독특한 억양에서 북이 고향이란 사실이 눈치챌 수 있다.

이슈 아닌 실력으로 스타노파

달래음악단은 당초 6인조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리더 한옥정(28·보컬), 허수향(22·무용), 강유은(19·아코디언과 보컬), 임유경(19·아코디언과 보컬), 이윤경(23·무용과 보컬) 등 5인조로 멤버 구성을 수정할 계획이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이 갈려 갈등하던 한 명이 탈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습실에만 들어서면 장난도 잡담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물먹고 화장실 가는 짬도 쪼개며며 연습해 주위 사람들의 혀를 내두르게 한다. 탈북자란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노래만이 아닌, 무용, 악기 연주까지 새로이 갈고 닦아 2~3시간 공연을 거뜬히 해낼 정도의 준비를 갖춘 생각이다.

이들은 물먹고 화장실 가는 짬도 쪼개며며 연습해 주위 사람들의 혀를 내두르게 한다. 탈북자란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노래만이 아닌, 무용, 악기 연주까지 새로이 갈고 닦아 2~3시간 공연을 거뜬히 해낼 정도의 준비를 갖춘 생각이다.

신분노출 걱정에 1명은 탈퇴하기도

“반짝 이슈”를 위해 똥친 팀이 아니라 끈질기게 입증하겠다는 의지다. 연습실 한편에 비치해둔 반주용 테이프에 맞춰 노래 하다 한 멤버가 만족스런 음색을 뽑아내지 못하자 한옥정은 “저기 가서 혼자서 계속 연습하라”고 지시할 정도다.

장윤정의 히트곡 ‘잔짜라’ ‘꽃’ 등을 쓴 작곡가 임강현씨는 멤버들의 노래와 연주 실력을 본 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프로듀서를 자청했고 아내인 작사가 정인 씨와 함께 이들을 위한 신곡을 이미 몇 곡 완성했다.

달래음악단은 12일부터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홍콩아 가씨’와 임강현 씨가 쓴 신곡을 녹음한다. 8~9월께 음반 발매 전 두 곡을 먼저 녹음해 7월 말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래음악단은 어느 가수처럼 단순한 스타나 엔터테이너가 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완, 日서 첫 팬 미팅 “나도 한류스타”

이완이 일본에서 자신의 첫 공식 팬 미팅을 열고 새로운 한류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이완은 10일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호텔 스텔라룸에서 총 1천여 명의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팬 미팅 ‘LEE WAN Meet & Great in Japan’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먼저 팬들의 질문에 대담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완은 일하면서 쌓인 피로로는 어떻게 푸는지를 묻는 질문에 “촬영하면서 일주일에 3~4시간 밖에 못 잘 때도 있지만 연기가 잘되면 피로가 저절로 풀린다”면서 “지금은 100신을 찍으면 1신 정도 밖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앞으로 100신 모두 만족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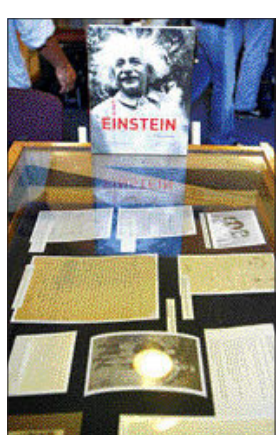
“몸매는 무슨... 먹는게 더 좋아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인터뷰**  
“예전 몸매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지만 요즘 젊은 스타들처럼 날씬해지려고 굶고 싶지는 않아요.” 왕년의 미녀 스타 엘리자베스 테일러(74)가 자신의 왕성한 식욕과 먹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A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테일러에 대해 “아주 마르지는 않았지만 과거 날씬했던”이라는 표현을 쓴 통신은 테일러가 잡지 하퍼스 바자 8월호와 가진 인터뷰를 인용했다.

테일러는 “예전 몸매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난 먹는 것이 너무 좋다. 난 페락주의자이고 인생을 즐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인슈타인은 연애에도 천재였다



**여성편력 서신 공개**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여성편력을 보여주는 편지들이 공개됐다고 미 abc뉴스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헤브루 대학이 10일 공개한 1천400여 통의 편지에는 아인슈타인이 두 번째 부인 엘자와 결혼생활 중이었을 때 만난 에스텔라, 에델, 토니, ‘러시아 스파이’ 마가리타를 비롯해 이나설로만 표기된 M. I.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공개된 엘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인슈타인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들이 애정공세를 퍼붓는다”고 설명했으며 의붓딸 마투에게 쓴 서신에서는 “Mei 영국까지 자신을 뒤따라왔으며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통제불능상태”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편지들은 1986년 7월 사망한 아인슈타인의 의붓딸 마투가 1980년 초 헤브루 대학에 기증한 것들로 마투는 자신이 죽은 뒤 20년간 편지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약속했던 20년이 경과돼 지난 10일 공개됐다.

광주은행, 문진위 후원금 3천만원 기탁



광주은행(행장 정태석)이 11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조동수·오른쪽)에 3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정 행장을 대신해 기탁금 전달식에 참석한 조동수 위원장은 “광주은행 광주시청 지점장(왼쪽)은 ‘광주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그마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수 위원장은 “광주은행의 성금 기탁을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내 고장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문진위 후원금 3천만원 기탁

“UN서 난민·이민자 눈과 귀 되고 싶어”



뉴질랜드 최연소 변호사 조숙현씨

조숙현(여·26·로빈 조)씨는 지난해 뉴질랜드 최연소 변호사가 됐다.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 오클랜드 법대를 나와 변호사 코스를 밟고 시험에 통과했다.

조 변호사는 11일부터 4일 간 열리는 2006 세계 한인 여성 네트워크(KOWIN) 행사에 초청돼 방한 “한인들이 뉴질랜드에 이민 와 초창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변호사가 돼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공부를 더해 한인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인, 독립국가연합(CIS)지역 출신 민족, 아프가니스탄인 등 뉴질랜드 내 난민과 이민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법정에서 변호를 해주며 현지 정착을 돕고 있다.

또 그는 5년 안에 유엔에 들어가 난민과 이민자들을 돕고,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통공사, 댕농기원 다양기 박사에 감사패



농산물유통공사(사장 정구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공이 많은 전남도 농업기술원 다양기 박사(53·오른쪽)에게 최근 감사패를 전달했다.

과수연구 담당인 나 박사는 수출 과수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연구 및 현장 기술지원으로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곡성병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재균)의 경우 고품질 생산기술 부족과 유통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나 박사의 헌신적인 현장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받은 후 2005년에는 미국에 96만 달러의 배를 수출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송기동기자 song@

재미 유학생 SAT서 만점 영예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아들 고결 군



한국 유학생이 미국 수능시험인 SAT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 배여크리고등학교 11학년 재학생인 고결(18·사진)군은 지난 6월 미 대학위원회와 교육평가서비스 공동주관으로 실시된 SAT(Scholastic Assessment Test)에서 미국인 학생들도 받기 어려운 2천400점 만점을 받았다.

고 군은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의 아들로, 현재 배여크리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 군은 4년전인 2002년 도미, 내년에 12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다. 고 군은 2005년에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 주최한 수학시합에서 만점을 받아 은상(Silver award)을 수상, 천재성을 입증받기도 했다.

수학을 제일 좋아하고 흥미를 느낀다는 고 군은 대학에서 정치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미 전까지 고 군은 평범한 어느 국내 학생과 같았다. 성적은 상위권이었던 게임에 몰두하며 부모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유학생 생활 한 뒤에는 테니스 대회에 나갈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등 한층 밝아졌다니 게 고 원장의 설명이다.

‘시험관 아기’ 1호 브라운씨

내년 1월 아기 출산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루이스 브라운(27)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임신해 내년 1월 자신의 아기를 출산할 예정이다.

2년 전 보안책임자인 웨슬리 물린더(36)와 결혼한 브라운은 시험관 수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임신했

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10일 전했다.

브라운은 근교에 살고 있는 브라운은 “우리 부부의 꿈이 실현됐다”며 기뻐했다.

인사

- ◆농촌진흥청 <서기관(승진) >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행정과장 한운택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모집
▲비둘기강점력상담소 무료상담 = 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업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 = 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 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월례회 = 12일(수) 오후 7시 나주공당. 652-7788
▲재광 무인중회 19회 동창회(회장 김영갑) 월례회 = 14일(금) 오후 7시30분 살맛나는 세상. 682-8592
▲광상 32회(일지모) 동창회 = 14일(금) 오후 8시 아마미 참치회집. 361-3555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공사 합평지사 농지임대 신청자 모집 = 도시 거주자 및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임대 수탁 관리 http://www.fbo.or.kr 061-320-5222
▲한국복지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 = 친부모의 사망·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 = 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모집 = 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